

케루빔(Cherubim)의 관하여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지성소를 경호(警護)하는 생물이다.

1)창세기 3장 24절은 케루빔들이 에덴동산 동쪽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들로 나온다.

2)보좌를 경호하는 두 케루빔(법궤, 출 37:6-9) 또는 지성소를 경호하는 네 생물(하늘 지성소, 계시록 4장)로 표현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성막 지성소 휘장에 케루빔을 수놓아 새겼고(출 36:8,35), 두 케루빔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20x20x20규빗)를 지켰다(왕상 6:23-28).

(출 36:8,35, 개정)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 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출 37:6-9, 개정)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며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왕상 6:23-28, 개정)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십 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3)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이자 발판이었으며 속죄소였다.

(삼상 4:4, 개정)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 삼성창을 부르며 야훼께 영광과 준귀와 감사를 드린다(7계 4:6-9). 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삼하 6:2, 개정)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에덴 동산을 경호하는 케루빔
(12-13세기 모자이크, 몽소승천 성당, 몬레알레, 시칠리아)
벽면에 "hic expulit adam et evam de paradiso deus et posuit cherubin custodem cum flammeo gladio"라고 새겼다. 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케루빔과 불 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는 뜻이다(창 3: 23-24).



하늘 지성소 보좌방의 경호 생물 케루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 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케루빔들은 경호 임무뿐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으로 불리는 것이다.

(대상 13:6, 개정)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랴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므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시 80:1, 개정)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듯이 맞춘 노래]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 99:1, 개정)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솔로몬 성전 지성소 상상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20x20x20규빗)는 성막 지성소(10x10x10규빗) 크기의 두배였다. 케루빔의 날개가 여섯 개씩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지성소의 네 케루빔은 야훼의 전차이다(대상 28:18).

(사 37:16, 개정)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대상 28:2, 개정)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출 25:22, 개정)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출 30:6, 개정)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레 16:2, 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4)케루빔과 유사한 경호 생물들

(1)라마수(Lamassu)

라마수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약 4천 년 전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대영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아시리아관 입구 양쪽면의 라마수(Lamassu)는 4.3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상이다. 정면은 우뚝 선 모습이지만 측면은 걷는 모양새다. 아시리아 인들은 수염달린 사람의 얼굴에 사자나 황소의 몸통에 새의 날개를 한 석상인 라마수를 만들면서 다리를 하나 더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다리는 다섯 개다. 그렇지만 정면에선 두 개, 측면에서는 네 개만 보이도록 했다. 이 때문에 라마수를 정면에서 보면 두 다리로 근엄하게 서 있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영락없이 네 다리로 걷는 모습이다. 라마수는 성이나 궁궐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는 수호신이였다. 신격(神格)을 상징하는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턱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라마수는 대부분 한 쌍을 이루어 왕궁이나 성벽의 입구에 서서 사악한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벽사(辟邪)의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에 비교될 수 있다.

라마수는 페르시아에 공물을 바쳐야했던 속주의 사절들이 통과하던 '만국의 문' 앞에도 서 있다. 페르시아 궁전의 만국의 문은 23개 지역의 사절단이 페르시아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통과했던 문으로써 페르세폴리스에 그 유적이 남아있다.

[가져온 곳: http://m.blog.daum.net/jeongdaepower/11283896?tp_nil_a=1]



페르시아 궁전의 '만국의 문'을 수호하는 라마수
 '만국의 문'은 23개 지역의 사절단이 페르시아 황제를 알현하고 공물을 바치기 위해 통과했던 문으로서 페르세폴리스에 그 유적이 남아있다.



라마수(Lamassu) 석상(범루드 출토)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주전 721-705) 궁전 코르사바드(Khorsabad)의 수호신, 대영박물관 소장.
 라마수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 사람의 얼굴을 한 수호신 라마수, 마르두크, 스팅크스는 현신인 황제들의 두상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2) 메소포타미아의 신족(神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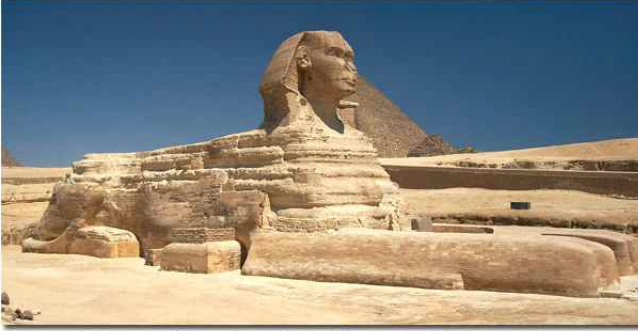


메소포타미아의 신족에 속하는 마르두크(Marduk)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다. 또한 창조의 신이자 세상의 날개를 가진 바벨론의 경호 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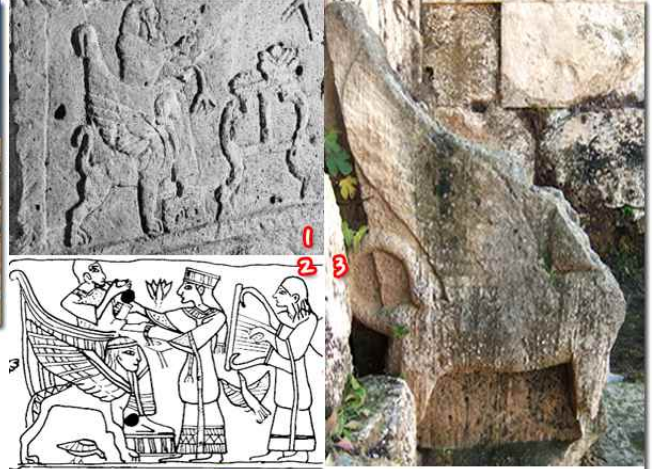


독수리 머리와 날개를 가진 아시리아의 니스르크(Nisroch)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범루드 궁전 부조, 니스웨)
 케루빔과 유사한 수호신이다. 신성한 나무에 물을 뿌리는 모습이다. 산헤립(Sennacherib, 제위 주전 705-681)이 히스기야왕 때 유다를 침공하여 라기스와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니스웨로 돌아가 기도한 신이 바로 니스르크였다.

(3)스핑크스들



피라미드 입구를 지키는 거대 스텍스
이집트 기자(Giza) 지역에 고왕국 제4왕조(주전 2613-2494) 파라오들이었던 쿠푸(Khufu), 카프레(Khafre), 멘카우레(Menkaure)의 무덤으로 알려진 세 개의 피라미드 입구에 세워져 있다.



여성 형상의 그리스 스텍스(주전 5-2세기, 놀라 이탈리아)



경호 생물 스텍스를 보조한 의자들과 하나님의 보좌(법궤)
1번은 페니키아 비블로스왕 아히롬(Ahirom)의 석관(c. 1000BC),
2번은 이스라엘 므깃도에서 출토된 상아음각, 3번은 시돈의 에스문 신전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여신 아스타롯의 석좌 및 법궤 덮개에 세운 케루빔. 케루빔 안 공간이 하나님의 보좌와, 발판이래, 속죄소였다.

2. 하나님의 전차를 끄는 생물이다.

(대상 28:18, 개정)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시 18:10, 개정)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어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삼하 22:11, 개정)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겔 10:15-20, 개정)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케루빔)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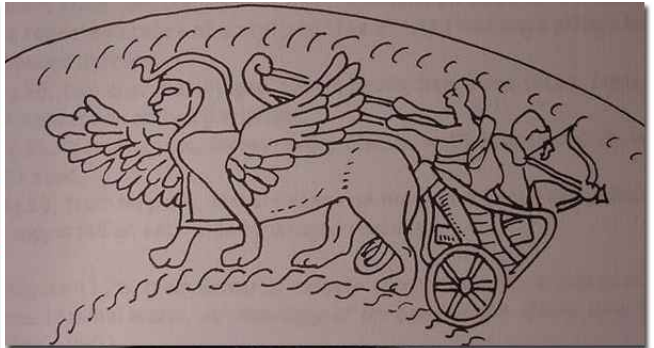


다리우스 대왕의 수사 궁전의 스텍스(주전 480년, 루브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와 함께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니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에스겔이 본 환상: 네 생물과 수레바퀴(에스겔 1, 10장)



케루빴 전차(주전 8세기경, 페니키안 예술형식)



날개 달린 바퀴에 앉으신 야훼
에돔-유대인들이 주조한 쿼터 쉐겔 (주전 333, 영국박물관)로서 뒷면에 날개 달린 바퀴에 앉으신 야훼께서 왼손에 새를 바치고 계신 모습과 하단 오른쪽에 수염을 기른 유대인 얼굴을 새겼다.

1)그 밖의 생물, 페가수스

3. 하나님 의전(예배, 경배, 찬양 등)을 담당하는 생물이 다(계 4:6-9, 사 6:1-4).

케루빴들은 여섯 날개의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며, 그 둘로는 날면서 밤낮 쉬지 않고 삼성창을 부른다.

4.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생물이이다.



페가수스가 끄는 전차를 탄 헬리오스(주전 400년경 그리스)

1)계시록 4장 6-9절의 네 생물

특징: 앞뒤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 날개 여섯, 삼성창 및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 각각 사자 얼굴, 송아지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

릴 때에.

2)이사야 6장의 케루빔

스랍들이 모시고 싶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3)에스겔 1장의 네 생물

특징: 사람 얼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네 바퀴, 두 날개로 몸을 가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 곧은 다리,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 넷의 정면 얼굴은 사람, 오른쪽 얼굴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날개 둘은 몸을 가렸고, 둘은 펴서 서로 연결하였다.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번개모양같이 왕래, 생물들 곁에 바퀴가 하나씩 총 네 개,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산 조반니(세례요한) 침례당 돔 모자이크(1225-c.1310, 피렌체) 중앙에 복음서를 손에 든 예수님과 아우라 좌우에 A와 W를 새겼고, 양편에 들썩 여섯 날개를 가진 케루빔을 새겼다(사진: Saiko).

[1]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초닷새라. [3]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와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4]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6]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7]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8]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11]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들썩 서로 연하였고, 또 들은 몸을 가렸으며, [12]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



케루빔과 천사들(시칠리아 체팔루 성당, 1200년경)



에스겔이 본 네 생물(by Sweet Media)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곧은 다리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들썩 서로 연하였고, 또 들은 몸을 가렸더라”(겔 1:6-11).

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14]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15]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빛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7]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지 아니하고 가며, [18]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19]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20]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21]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23]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퍼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25]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그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에 유배당하였다. 30세가 되어 제사장이 되었으나 바벨론에 성전을 세울 수 없었으므로 제사장 활동은 할 수가 없었다. 5년 후인 주전 592년에 환상을 보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케루빔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 에스겔 4-24장은 죄를 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신탁이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포위당하는 장면을 토판에 그리는(4:1-3) 등의 상징적 행동과 이스라엘 땅의 끝을 선언하는 예언(7장) 등의 구술 신탁이 포함된다. 8-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는 유다의 죄, 특히 우상숭배 때문이다. 또 성전의 파괴를 예견하기도 한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는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 성전 뜰에 있는 당신의 전차를 끄는 케루빔들을 만나시는 과정을 기술한다.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계시는 모습을 그린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악과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신탁은 12-24장에서 계속된다(트렘퍼 롱맨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김동혁 옮김, IVP, 2016, 189-190).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환상은 5-6년 후인 주전 586년에 이뤄졌다. 바벨론의 침공을 야훼 용사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치신 것으로 묘사되었다(예: 예레미야애가 2장).

추가: 다니엘의 환상(일곱 머리, 열 뿔)과 관련된 그림들



메두사를 새긴 갑옷을 입고 이투스 전투 (333BC)에 나선 알렉산더의 모자이크 형상



산양뿔이 달린 암운 제우스



암운뿔이 달린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셀레우코스 1세가 만든 금화
 알렉산더의 어머니 부케탈로스의 머리에 소뿔을 새겼으며,
 "BASILEOS SELEUKOS" (왕, 셀레우코스)라고 썼다.

테라코타: 1세기에 조각된
 산양뿔이 달린 안목 제우스

